

완도에 매머드급 청해진스포츠센터 개소

195억원 투입, 지상 2층 연면적 7136㎡ 규모 다양한 스포츠 행사...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완도에 대규모 스포츠센터가 문을 열었다. 완도군은 19일 완도를 가용리 체육공원 내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재갑 국회의원, 허궁희 완도군의장, 이철 전남도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해진스포츠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청해진스포츠센터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총사업비 195억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연면적 7136㎡, 지상 2층, 관람석 1026석 규모다.

완도군은 센터 명칭 공모를 통해 완도의 옛 명칭인 청해진스포츠센터로 명명했다. 완도군은 스포츠센터에서 다양한 스포츠 강

좌를 운영해 군민들에게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행사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개최되는 제62회 전남체전과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2024년 전남생활체육대축전 등 5개의 대규모 체육 행사의 주 무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군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 체육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육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내년부터 치러질 대규모 체육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완도 경제에 효과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완도군은 19일 완도를 가용리 체육공원 내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재갑 국회의원, 허궁희 완도군의장, 이철 전남도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해진스포츠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사진=완도군 제공)

강진군농촌활성화센터, 생활주변 재료 활용한 천연염색 기술 보급

강진군농촌활성화센터(센터장 윤영갑)가 지역 주민역량강화사업 중 하나로 천연염색 교육을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에서는 5월부터 8월 17일까지 다산초당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천연염색 심화반 교육을 추진하고 지난 17일 교육생 20여 명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천연 염색 교육 과정은 생활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염색재료를 채취해 일상생활에 쓰이는 각종 천을 염색하고,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는 실습 과정이다. 한국천연염색공예협회 회원이자 전남협회장인 산에들에 대표 김영희 씨가 강사로 나섰다.

윤영갑 센터장은 “주민역량 강화는 단순 교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전문 리더 양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함께 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아리랑상품권, 추석맞이 10% 할인 판매

농·축협 등 18개 금융기관서 구입

진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은 개인당 종류형과 카드형을 합쳐 월 70만원, 연 600만원

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가맹점주는 카드형만 할인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 구입은 관내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 18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카드형은 '지역상품권 차(chak)앱'을 통하거나 관내 농협과 새마을 금고를 통해서 카드발

급·충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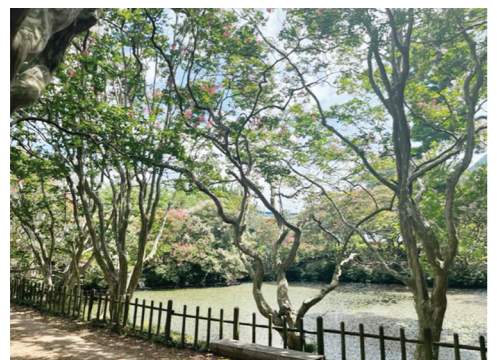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 판매를 진도군이 지속적으로 시행해 올해 상반기 판매액은 200여억원에 환전액은 185억원으로 집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군은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신고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심 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예산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할인 판매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진도아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만큼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앞장서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 송백정 배롱나무 군락지 정비

장흥군은 18일 장흥읍 평화리에 위치한 기념물인 송백정 배롱나무 군락지의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에 산림휴양과 공공숲가꾸기 작업단 16명이 투입됐으며, 작업단은 송백정 진입로와 배롱나무 군락지 등을 깔끔하게 정비했다.

송백정 군락지 일대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칩새들이 나무들을 휘감아 경관을 저해하고, 수목 생장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번엔 일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장흥=김도영 기자

해남군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개소

계곡면에 6개월간 영농교육 등 귀농·귀촌 준비 지원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최근 개소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체류형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영농교육과 농촌생활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 정착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교육센터이다.

단독주택 12동의 주거공간과 영농체험장, 공동작업장, 감의실 등을 갖추고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영농교육과 함께 다양한 지역 체험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기존 귀농귀촌희망센터의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체험단련실과 도서실, 동아리방 등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사건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명의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앞으로 6개월간 체류형지원센터에 거주하게 된다.

개소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해남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입주자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남=기동취재본부

강진 연근의 화려한 변신

온가족 건강간식으로 인기

사시사철 온화한 기후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강진군 연으로 만든 '연잎전병과자'가 추석 명절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강진군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강진 건강 10대 농식품'으로 선정해 명품 소득 작목으로 육성·상품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한 품목이 연으로, 재배기술 보급 및 교육, 유통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강진군 성전면에서 농협회사법인 ㈜느린건조를 운영하고 있는 서형호 대표는 연을 이용한 연잎전병과자를 선보이고 있다. 무농약 쌀과 무농약 연 등 믿고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생산한 연꽃의 은은한 향기와 자연의 맛을 그대로 담은 제품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이다. 또, 두께가 얇아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부담없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오!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